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순 박순철

# 천년 전통 '장흥 청태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보존기반 마련·관광자원 활용 등 15억원 지원



전통 발효차 청태전이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설편'이 지난 11월 30일자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자원 가운데 국가에서 보호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유산을 말한다. 장흥 청태전은 구멍 뚫린 동전 모양으로 빻어 발효시킨 전통차로 구수한 맛과 특유의 깊은 향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7년부터 장흥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태전 제다업체의 노력으로 전통 제조방법을 체계화했

으며, 이후 상품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삼국시대부터 천년을 이어 장흥 지역민과 함께 해 온 청태전의 역사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 지역 안팎의 평가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주홍 의원은 장흥 청태전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필요성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앞으로 청태전 농업유산지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년간 15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앞으로 청태전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로 이용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을 지역구로 둔 황주홍 국회의원은 "국회와 장흥군청의 긴밀한 협조 속에 오랜 기간 준비해온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설편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 영암읍주민자치위, 통영시 명정동서 '선진지견학'

###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영암군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위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우수기관인 통영 명정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 2018년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을 실시했다.

이번에 찾아가 통영시 명정동 주민자치센터는 2014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역활성화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이다. 또한 현재 지역활성화를 위한 '서피랑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화합을 위한 인사하는 거리조성' 등 다양한 지역특색사업을 시행하고 난타, 요가교실 등 6개 상설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성원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암읍 주민자치위원들은 명정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해

명정동 김정명 동장 주관으로 진행된 주민자치사업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했다. 이어 우수사례 교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서피랑 마을 만들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활성화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눴다. 한편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 문철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이곳에 와서 영암읍 주민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여수형 휴양도시 구상' 2018 지역 마이스 여수 포럼 개최

여수시가 2018 지역 마이스(MICE) 여수 포럼을 열어 여수형 휴양도시를 구상하고 마이스의 역할을 고민한다. 여수시는 마이스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도시인데다 민선 7기 도시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결정하는 등 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포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포럼은 오는 8일부터 7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휴양·마이스업에 관계자, 컨벤션 시설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예정이다. 여수시와 전남도,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며 진행순서는 주제강연, 발제·토론, 마이스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다. 주제는 '휴양도시 여수! 지역 마이스의 역할'로 여수가 휴양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휴양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지역 마이스업계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제강연자로 이성재 고려대 해양치유산업연구원 교수,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이 나선다. 주제는 각각 휴양 치유·관

광 : '국내외 현황과 미래', '휴양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발제·토론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홍정원 한국산업단지진흥원 본부장이 '산업복지의 등장과 전망', 유지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헬니스 관광을 통한 휴양도시 발전전략'을 발제한다. 2부에서는 윤승현 화백컨벤션센터 사장이 '컨벤션 산업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방안'을 발제하고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여수=송기홍 기자

## 제2회 담양산타축제 준비 '분주'

### 대형 산타·터널형 경관조명 설치로 기대감 고조

담양군이 연말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제2회 담양산타축제'의 준비로 분주하다. 군은 '산타와 나누는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담양읍 원도심과 담양읍의 작은 유럽마을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제2회 담양산타축제'를 개최한

다. 담양읍 원도심의 중앙공원은 지역민을 위한 윈터조성을 컨셉으로 대형트리와 대형 산타조형물, 대나무를 활용한 특색 있는 조명으로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열리는 산타축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양의 새로운 관광명소

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는 겨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메타세퀘이아길 입구 가로수 2그루를 활용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대형 산타조형물과 터널형 경관조명, 수목에 활용한 경관조명 등 다양한 경관조명으로 불을 밝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관광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청정해역 고흥군, 2019년산 김 본격 생산

고흥군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2019년산 물김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고흥군은 올해 10.159ha에 모두 101,590척이 시설되어 도하면 발포 위판장에서 11월 20일부터 물김 수매를 시작했으며, 물김 가격은 1포대

(120kg 기준) 당 최저 40,000원에서 최고 82,900원으로 위판 가격을 보이고 있다. 올해 김 채취시기인 10월초 제2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평년보다 수온이 낮고 바다 여건이 좋아 지난해 생산량 10만 6천톤에 1,100억 원

(물김 수매위판)의 실적을 올해 목표로, 11월2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6,387톤에 28억 6천만 원의 물김 위판으로 순조롭게 김 생산을 하고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위판장 개장식을 찾아 김양식 어업인을 격려하며 올해도 대풍이 이어지길 기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화순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설명회



화순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능가 확대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기존 인증 농가 및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인증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제이케이주식회사 친환경인증센터의 조양도 팀장이 초

경 축산물 인증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군은 농가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획득할 경우에 인증 수수료와 분석비용 등을 포함하여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출하두수에 따른 출하 장려금, 인증보상비 100만원 지원과 축산분야 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완도군, 슬로시티 비전 및 전략 논의

완도군은 '슬로시티 완도 전 지역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슬로시티본부로부터 받은 완도군청 전 부서장이 모여 ▲1島1색(특색 있는 섬 만들기) ▲해양치유산업과 섬 재생 프로젝트 결합 ▲섬과 섬의 연결을 통한 관광객 동선 확대 등 완도 슬로시티 제3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2013년 재 인증을 받고 금년 4월 완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이에 슬로시티 발상지로서의 발전 방향과 완도 전 지역 확대를 통한 권역별 관광자원과 슬로시티 운동 확대를 위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